

중국의 농업과 농약산업, 그 현황과 전망



중국 농약시장

현지 · 외국업체간 '생존경쟁의 장'

2001년도 매출액 12~14억달러, 가격경쟁 심화로 감소 · 정체
향후 5년간 연 0.5% 상승 · 소폭하락 전망 양분

중국의 농업과 농약산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중국은 본디 국토가 크기도 하지만 산업규모나 구조를 보아도 외국인의 눈으로는 그리 쉽게 이해되거나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농약산업의 경우는 정부 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가 원칙적으로 없다. 이 때문에 자칫하면 꼬끼리의 모양을 각기 달리 이야기하는 장님의 경우와 같은 우를 범하기가 쉽다. 필자는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엄청난 지역차와 정보의 차이로 인한 편차가 있을 수 있음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한다.

중국의 농업 개요

중국은 국토의 면적이 93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해 우리나라 국토의 40배가 넘는다. 인구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2001년도 자료에 의하면 12억7천만 명으로 동기의 한국 인구, 즉 4천7백만 명에 비해 27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중국은 그 국토에서도 주로 성도 (Chengdu), 무한 (Wuhan) 및 상해 (Shanghai)를 가로지르는 지대로부터, 북경(Beijing)까지 이르는 지역의 땅이 집중적으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더구나 산업화가 동쪽 해안선 부근에 집중되면서 인구의 집중은 농업의 집중화를 더욱 가속시키고 있다.

중국이 큰 나라인 것은 분명하다. 농업의 규모 역시 가히 천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중국의 농업면적은 5억ha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 농업면적의 11%에 해당하며 미국보다도 큰 면적을 자랑한다. 가히 세계 최대

규모인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최근 FTA협상 체결의 당사자인 칠레는 전 세계 면적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중국과 비교하여) 나라에 불과하다. 이렇게 거대한 중국의 농업시장과 마주하고 있는 한국의 농업은 어떤가. 중국 농업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그 미래는 불투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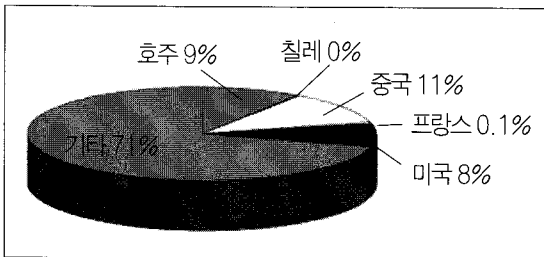


그림 1. 각국의 농업면적(FAO, 2001년)

중국의 농업 생산물을 식량자급도란 측면에서 살펴보자. FAO의 통계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맥류(대맥 및 소맥) 및 서류의 자급률은 약 95%이다. 두류는 약 110%, 채소는 약 101%, 그리고 과실류는 99%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거의 모든 부류에서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도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런데 중국의 인구추이를 보자. FAO는 중국의 인구가 당분간 계속 증가하여 2010년경에는 약 13억7천만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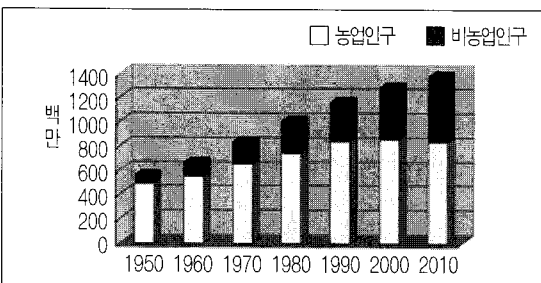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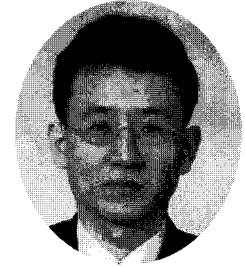


그림 2. 중국 농업인구 추이(FAO, 2003)

한편 농업인구의 증가는 정체되거나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식량 소비 증가추세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이 언제까지나 식량의 자급자족을



한용천

CPP Technology Leader of China, Korea and Taiwan.
CPP R&D Manager of China, (유) 듀폰 소사

지속해나갈지는 불확실하다. 결국 중국의 농업 생산성 향상 여부가 중국 식량자급 여부에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간 중국이 걸어온 생산성 향상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볼 때 전망이 그리 밝은 것은 아니다.

품질의 향상은 주로 그것이 가시적이기 위해서 생산량의 향상이 우선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과 등의 몇몇 품목은 이제 질적으로도 성장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일까? 중국은 농업부가(Ministry of Agriculture) 작년 말, WTO가입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농업의 나아갈 길을 집대성하여 야심찬 '세계경쟁의 계획'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별도의 기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자.

중국의 농약산업 현황

중국은 전통적으로 정부가 농약 사용 관련 통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권위있는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몇 개의 컨설팅 회사가 그 자료를 계속 집계하고 있기는 하다. 필자는 여기에서 ARN Limited(이하 ARN으로 명기)와 Phillips McDougall(이하 PM으로 명기), 그리고 약간의 FAO자료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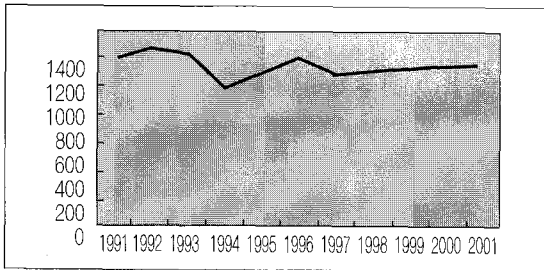


그림 3. 중국의 농약 매출 추이(PM, 2003)

우선 전체적인 농약시장의 크기를 보면 지난 2001년도의 농약매출은 12억(PM)에서 14억달러로(ARN) 집계되었다. 또 과거 10년간의 매출액 추이를 보면<그림 3> 중국의 농약매출은 전반적으로 약간의 감소 내지는 정체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추세는 ARN의 자료에서도 발견된다. 이는 주로 농약 사용량의 감소라기보다는 현지의 원제합성 업체와 현지 제조업체들의 가격 경쟁에서 비롯한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의 농약 시장은 아직도 현지 생산업체와 외국 업체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농약시장은 살충제가 주종을 이뤄 약 46%에 이르고 제초제와 살균제가 각각 40%와 12%로 뒤를 따르고 있다(PM, 2003). 그러나 살충제는 매해 감소하고 있으며 제초제는 증가 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4).

중국 농약시장에서의 현지 업체와 외국 업체의 매출을 비교하면 현지 업체가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과거 10년간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 비율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외국계 기업은 주로 살균제에서, 그리고 현지 기업들은 제초제에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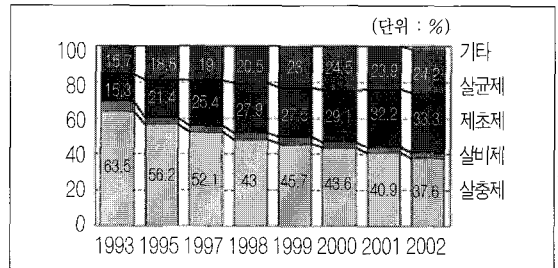


그림 4. 중국 농약시장 추이(ARN, 2003)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과거 10년간 외국계의 주요 농약회사가 제초제 보다는 새로운 살균제를 많이 개발해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고소득 작목에서의 병해충 방제가 중요한데 이에 필요한 고성능의 살균제를 현지 업체에서는 찾기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중의 하나이다.

외국업체의 실적을 회사별로 보면 신젠타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고 그 뒤를 바이엘, 다우 아그로사이언시스, 몬산토, 듀폰 등이 따르고 있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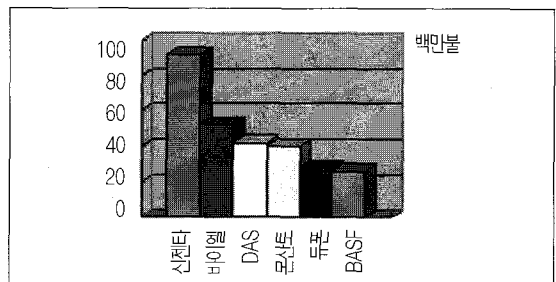


그림 5. 외국기업의 매출순위(ARN, 2003)

FAO통계에 의한 중국의 농약무역을 살펴보면 수입은 1999년을 고비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감소세가 해를 거듭할수록 뚜렷해 보인다(그림 6).

이는 점차 중국내의 외국기업들이 제품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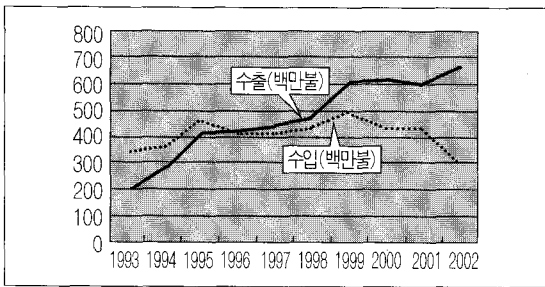


그림 6. 중국의 농업 대외거래(FAO, 2003)

여주는 것이며 또 외국 업체가 중국 내에서 직접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제조해야만 하는 중국 현지규정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현지 업체는 자력으로 수출을 늘리는 동시에 외국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형식의 수출을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다. 이는 외국 기업의 현지화 노력과 국제시장에서 값싼 원료를 구매코자 하는 노력, 중국 현지 업체의 계속적인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농업정책

중국이 WTO에 가입하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농업부문에 대한 중국의 위협에 전전긍긍하는 눈치이다. 물론 WTO가입은 중국의 농산물이 해외로 진출함에 있어서 커다란 장벽을 헐어버린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이 중국에게는 무조건 호재라고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왜냐하면 WTO로 인해서 중국도 역시 자신의 시장을 개방해야 하며 사회주의적 방식의 무조건적인 농업보호를 계속해 나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이·탈농 그리고 심해지는 도농간 격차 등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칩첩산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중국정부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지난해 말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의 농산품 중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더욱 선별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와 농산물의 질적 향상을 달성하고 이를 통해 최고의 상품으로 육성, 세계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대로, 생산성의 향상이 두드러진 사과와 '세계 품목화'가 단적인 예이다. 사과 단일 품목으로 세계를 석권할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시장으로의 진출도 그리 멀지 않은 듯하다. 이 외에도 밀, 콩(대두), 목화, 유채, 고구마, 감귤, 과채류의 농산품을 포함 모두 8개의 정책적 지도 육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농약사용 전망

중국의 농약 사용을 간단히 전망해 보면 첫째, 고소득 작물의 경우 외국기업의 시장 점유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WTO로 인한 안전한 농산물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있어서이다. 현재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 농산물이 싸지만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조만간 싸고도 안전한 농산물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농업 관계자와 농민은 중국이 선정한 농작물이 무엇이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대책은 어떠한지 하는 지에 대한 답을 구해내야 한다. 둘째, 고품질의 밀, 사과 등의 생산을 적극 추진하는 중국은 보다 안전한 고성능의 농약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셋째, 유기인계 살충제는 이미 채소에 쓰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 약 2006년경에는 유기인계 살충제의 사용은 거의 중단되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렇듯 안전하고도 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은 필연적으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지만, 이는 농업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다섯째, 당분간 농약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 매년 소량의 감소와 증가를 오가며 조정세를 계속할 것이다. PM은 향후 5년간 연 0.5%의 소폭 상승세를 예측하고 있지만 필자는 소폭의 하락세에 비중을 두고 싶다. 이는 계속되는 현지 업체의 품질 향상과 치열한 가격 경쟁, 그리고 외국 업체의 현지 조달 (local sourcing) 전략과 맞물려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최근 중국은 WTO가입과 더불어 지적 재산권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무분별한 무단복제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외국 업체가 신제품과 기술서비스를 앞세워 중국 농약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곱째, 최근 몇몇 현지의 원제 및 제품 판매 업체가 몇몇 지역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유통업체로의 변신을 가속하고 있다. 게다가 대만 업체인 Sinon은 중국 현지에 소매점을 직영으로 설립,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시작했다. 이들 이외에도 지역 단위에서 다수의 유통 회사가 설립되고 있다. 현재 보이는 소매점 및 유통업은 아직 시작단계여서 전국적 단위의 시장을 확보한 유통점은 전무한 상황이다. 중국의 업계에서는 유통 상업의 성공 여부가 업계 초미의 관심사이다.

한국 농업에의 시사

우선 한국 농업인의 중국 농업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점이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가 최근 겪은 칠레와의 FTA비준 문제는 사실 중국과의 농업경쟁을 놓고 볼 때 어찌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농업 생산물의 종류나 그 생산 시기로 보아 한국에는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대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공업과 서비스업이 동아시아 3국과의 관계에서 그 약점과 성장 동력이 논의 되고 정책적인 지향점을 찾아 나가듯 한국의 농업 역시 이런 관점에서 자리 매김을 하려는 노력이 더욱 시급 하다 할 것이다. 결국 중국 농업의 정책적 지향점을 주시하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와 견주어 어떻게 농업을 자리 매김할지 하는 것이다. 중국의 농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현재 한국의 농업과의 격차는 분명하다. 이런 특화된 부문과 중국과의 향후 경쟁 관계를 일본 시장을 놓고 봄이 더욱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농업을 '우리'만의 먹거리를 만드는 농업의 시대를 계속 견지하는 한 우리의 농업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지나가고 있다. 최근 보여주는 중국의 농업과 농약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이를 중국당국은 수출산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걸 맞는 규제와 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그에 따라 선진국의 제도를 들여오는 데에 아주 적극적이다. 한국의 농약관련 기관도 국내의 업계나 특정 농민단체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농업의 구조속에서 농약의 순기능을 확대하여 농업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코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약정보**